Daishin 증권

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실적 장세 재개

- 협상 기대감에 유가 하락, 국내 증시 상승 국면
- 실적/수주 모멘텀 부각 속 반도체와 건설 강세
- 코스닥, 제약/바이오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ndustry Report] 반도체업: 다음 정거장은 3,000 조원

- Super Cycle, 그 이상의 성장을 전망.
- 단기 이익 성장의 기울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 지속력도 강화.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적극적 매수 접근 유효.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Issue Comments] HD 현대중공업: 해외 조선소로 전략적 돌파구를 찾다

-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HHIP는 HVS와 함께 Sea Belt 핵심전략지
- 베트남에서 건조 검증이 된 115k PC선 위주로 반복건조 집중 예정
- 그룹의 해외 조선사 확장은 기술적인 레거시 측면에서 동사에 수혜

이지니. jini.lee@daishin.com

[Issue Comment&Earnings Preview] 현대위아: 업황 불확실성을 모멘텀으로 상쇄하는 국면

- 언론 현대위아 방산사업 => 현대로템 매각 가능성 보도. 관건은 매각 가치
- 방산사업 가치는 방식에 따라 최소 3,700~최대 8,800억원으로 추정
- 전쟁/부품사 화재로 불확실성 존재하나,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쇄하는 국면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1Q26 Preview] LGU+: 착실하게 이행 중인 밸류업

- 1Q26 매출 3.9조원(+5% yoy), OP 2.7천억원(+7% yoy)
- 총주주환원 25년 3.6천억원, 26E 3.8천억원. 26E 수익률 5.7% 전망
- 주주환원율 40~60% 목표, 26E 53%, ROE 8~10% 목표, 26E 7.7%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실적 장세 재개

- 협상 기대감에 유가 하락, 국내 증시 상승 국면
- 실적/수주 모멘텀 부각 속 반도체와 건설 강세
- 코스닥, 제약/바이오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협상 기대감에 유가 하락, 국내 증시 상승 국면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강세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간다고 언급했으며 이틀 내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발언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33년 만에 휴전 협상을 진행했고, 추가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동 지정학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며 국제 유가는 WTI가 91달러, 브렌트유가 95달러 수준으로 레벨 다운. 전일에 이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현, 선물 순매수

실적/수주 모멘텀 부각 속 반도체와 건설 강세

국내 증시는 중동 사태로 억눌렸던 실적/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는 상황

반도체 업종은 실적 전망치 상향이 뚜렷한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며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

다만, 장중 ASML이 1분기 호실적에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반도체 업종이 반락했고,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코스피도 유사한 흐름을 보임

반도체: 삼성전자(+2.2%), SK하이닉스(+3.0%), SK스퀘어(+3.9%)

건설 업종의 강세도 뚜렷. 중동 인프라 재건 수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상승 요인이었으며, 원유 충격으로 인한 에너지 우려 속 원전 수주 모멘텀도 긍정적

건설: 대우건설(+21.3%), GS건설(+9.5%), DL이앤씨(+3.5%)

코스닥, 제약/바이오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AACR 앞두고 연구 성과 발표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일제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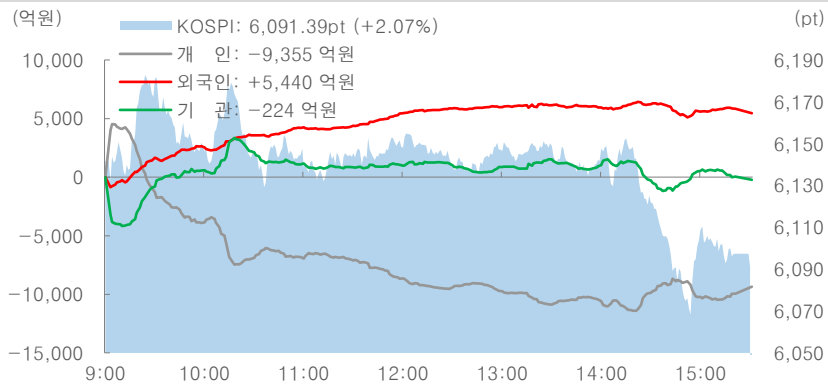
코스피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4.3%), 삼성에피스홀딩스(+12.4%)

코스닥 제약/바이오: 알테오젠(+5.7%), 삼천당제약(+6.7%), HLB(+8.8%)

코스닥 내 2차전지 소재/부품 관련주 강세가 두드러짐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16.9%), 나노신소재(+10.8%), 신성델타테크(+7.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ndustry Report

반도체업

다음 정거장은 3,000조원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RA서지원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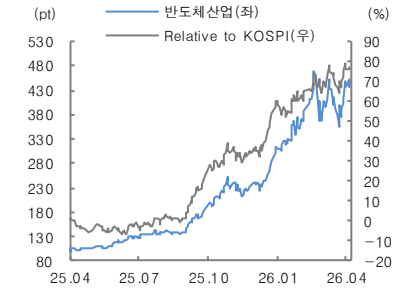
비중확대, 유지

- Super Cycle, 그 이상의 성장을 전망.
- 단기 이익 성장의 기울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 지속력도 강화.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적극적 매수 접근 유효.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전자	Buy	330,000원
SK하이닉스	Buy	1,70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9	45.4	136.8	329.7
상대수익률	5.7	15.1	41.3	76.8



다음 정거장은 3,000조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이 2,000조원에 도달. 예상 대비 높을 단기 이익 성장의 기울기, 장기 계약으로의 구조 전환 속 장기화될 사이클의 가치 등이 주가의 재평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330,000원, 1,700,000원으로 상향 (기존 목표주가: 삼성전자 270,000원, SK하이닉스 1,450,000원).

Super Cycle, 그 이상의 성장

2026년과 2027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 전망치를 7,974억 달러 (y-y +264%), 1조 321억 달러 (y-y +29%)로 상향. 수요의 비선행적 팽창과 구조적 공급 병목 속, Super Cycle 그 이상의 성장을 기대 가능한 환경.

전 제품군에서 나타나는 호황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90.8조원에서 2026년 605조원, 2027년 742조원으로 상승할 것.

1. 범용 DRAM: 예약금은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당사는 지난 2월 보고서 (2월 25일 반도체: Breaking the rules)에서 장기 계약으로의 판매 구조 전환과 주주환원의 강화가 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 변화는 현실화되고 있고, 장기 계약은 지속 확대될 것.

- 범용 DRAM 매출액 내 장기 계약의 비중은 2Q26 10% 중반 이상으로 확대될 것. 북미 CSP 4사향 계약 구조는 장기 계약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 비중의 추가 상승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는 판단.
- 2027년 말까지의 DRAM Capa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판단. 고객들의 땅 따먹기는 시작되었고, 줄어드는 Capa에 계약 미체결 고객들의 공급망 우려는 극대화될 것. 이에, 후속 계약에선 공급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2. HBM: 강화되는 수익성 제고 노력

범용 DRAM과 HBM의 수익성 역전 현상 심화. 1Q26 기준 범용 DRAM과 HBM의 수익성은 15%pt 이상 확대. 2025년 보수적 가격 협상의 결과물.

2027년에는 "제 값 받기" 노력이 강화될 것. 전 제품군에 걸친 ASP 정상화 노력과 제품 믹스 변화 효과 (2026년 HBM3e/HBM4 중심, 2027년 HBM4/HBM4e 중심) 속, 2027년 HBM ASP는 전년대비 42% 상승할 것.

3. NAND: 제품 다각화와 최소 투자

AI 추론 확장에 따른 메모리 계층화 속, NAND에서도 제품 다각화가 시작 (TLC, QLC, KV Cache, Storage Next, HBF 등). 강력한 서버 수요 성장 기회에도, 공급업계의 최소 투자 기조는 유지. 가격의 Surprise을 유발할 변화. 한국 반도체의 경우, KV Cache용 SSD에서 추가 기회 창출 가능할 것.

Issue & News

HD현대중공업 (329180)

해외 조선소로 전략적 돌파구를 찾다

이지니

jinj.lee@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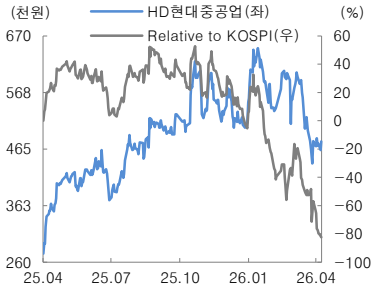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80,000
유지

현재주가 (26.04.15) 475,500
조선업종

KOSPI	5,967.75
시가총액	50,27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51%
자본금(보통주)	52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48,000원 / 347,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90억원
외국인지분율	14.50%
주요주주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외 4 인 69.28% 국민연금공단 6.2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9.6	-22.1	-3.4	37.8
상대수익률	-26.1	-38.4	-42.4	-43.3



-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HHIP는 HVS와 함께 Sea Belt 핵심전략지
- 베트남에서 건조 검증이 된 115k PC선 위주로 반복건조 집중 예정
- 그룹의 해외 조선사 확장은 기술적인 레거시 측면에서 동사에 수혜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을 거점으로 전략적 동남아 Sea Belt 구성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HD HHIP는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지역(Sea Belt)의 저원가를 내세운 거점으로, 중국의 저가 수주를 측면에서 견제하는 핵심 전략지임. HD그룹은 과거 베트남(HVS)에서 MR PC선을 반복 건조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린 경험을 토대로 HHIP를 운영할 계획.

서버러스 PE로부터 인수한 6도크는 먼저 검증된 115K PC선을 위주로 반복건조에 집중할 예정. 수주 선종의 선가는 낮지만 그에 대응하는 낮은 노무비 수준 덕분에 반복건조만 병행된다면 수익성은 제고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생산성 회복을 위해 상선 사업부에 집중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산 및 MRO 쪽에서의 전략적 협업을 기대할 여지 있음

해외 조선소 확장은 사업 측면에서 국내가 수혜를 받는 구조

해외 사업 확장은 역량 이전이 아닌 국내의 기술 레거시를 공고하게 만들어 중장기적인 매출 저변 확보를 가능케하는 수단. 필리핀 조선소가 과거 한진중공업의 실패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기자재 업체로 수혜가 들어오고, 물량의 회복은 결국 중소조선사의 수주 일감 회복으로 이루어지며 유기적인 선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주와 사업적 측면에서는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80,000원 유지

Target PE 21.6배는 유지하되 EPS를 2028F로 적용. Target EPS를 2028년으로 적용한 이유는 수주잔고 선가 상승 구조 및 28년 슬롯 매진에 따른 이익 가시성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동사의 1Q26 매출액은 5조 5,681억원(+45.7% YoY), 영업이익 8,276억원(+90.8% YoY), OPM 14.9%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자세한 실적은 10p 참고)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4,486	17,581	24,192	25,521	26,447
영업이익	705	2,038	3,071	3,602	4,447
세전순이익	798	1,801	3,014	3,718	4,848
총당기순이익	622	1,415	2,369	2,923	3,810
지배지분순이익	622	1,415	2,369	2,923	3,810
EPS	7,001	15,702	22,566	27,844	36,300
PER	41.1	32.4	19.5	15.8	12.1
BPS	64,259	103,625	113,416	146,415	193,107
PBR	4.5	4.9	4.2	3.3	2.5
ROE	11.4	18.8	22.3	21.4	21.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HD현대중공업,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ssue Comment & Earnings Preview

현대위아 (011210)

업황 불확실성을 모멘텀으로 상쇄하는 국면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5,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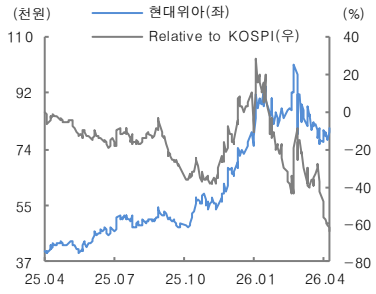
현재주가 80,400
(26.04.15)

자동차업종

- 언론 현대위아 방산사업 => 현대로템 매각 가능성 보도. 관건은 매각 가치
- 방산사업 가치는 방식에 따라 최소 3,700~최대 8,800억원으로 추정
- 전쟁/부품사 화재로 불확실성 존재하나,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쇄하는 국면

KOSPI	6091.39
시가총액	2,18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7%
자본금(보통주)	13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1,300원 / 40,0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24억원
외국인지분율	17.38%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4 인 40.74% 국민연금공단 9.3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7	-8.8	62.6	89.8
상대수익률	-13.3	-28.2	-2.4	-22.8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5,000원 유지

TP 10.5만원은 2026년 EPS 6,767원에 Target PER 15.1배(성장성 부각됐던 2023년 평균) 적용. 이란 전쟁/대전 부품 공장 화재로 단기 업황 불확실성 존재. 하지만, 방산 사업부 매각/사업 효율화에 따른 현금 확보 => 신사업 기대감 확대 가능성 감안 시, 단기 불확실성을 미래 기대감으로 상쇄 가능할 것. 방산사업 매각 현실화/가치 산정에 따라 영향 달라지겠으나,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3,700억 이상)에서 매각된다면, 신사업 확장 기대감 유효할 것으로 전망

방산 사업부 가치: 최소 3,700 ~ 최대 8,800억원 추정 가능

4/16일 언론 통해 현대위아의 현대로템에 방산사업부 매각 가능성 보도. 그룹사 사업 효율화 측면에서 사업부 매각은 합리적이라 판단. 현대위아-현대로템 모두 상장사이기에 사업부 매각할 경우, 자본시장/공정거래법 및 주주가치 감안해 공정 가액 산정할 것. 당사는 **현대위아 방산사업 가치를 밸류에이션 방식에 따라 최소 3,700~최대 8,800억원 수준으로 추정**

매각 현실화될 경우, 현대위아는 2025년 공작기계 사업 매각 이후, 사업부 매각 통한 추가 현금 마련 가능. 이를 통해 열관리 및 공장 자동화 사업 관련한 신사업 투자 지속할 것으로 예상. 마진 높은 사업부 매각으로 단기 실적은 (-) 효과 예상되나, 당사가 예상하는 적정 가치에 매각한다면 재원 마련 => 신사업 투자 확대 => 성과 가시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향 가능할 것으로 예상

참고로 현대위아의 방산 사업부는 화포(전차/자주포용) 중심 방산 사업 영위하며, K2전차/K9 자주포향 화포 납품. **25년 매출 4,000억원, OPM 10% 수준으로 파악 (전사 매출 대비 5%/OP 대비 20%).** K2 2차물량 인식 본격화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가시성 확보

2Q26 업황 불확실성 상존하나, 1Q26 단기 실적은 양호

1Q26 매출액 2.1조(YoY +1%, 이하 YoY), OP 442억원(-9%)으로 컨센/당사 추정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전망. [차량부품] 매출 1.9조(+1%), OP 340억(-3%), OPM 1.8% 추정. 멕시코/러시아 가동률 하락에도 1Q25 일회성 (성과급 -61억/원자재 정산 -90억) 기저 효과로 수익성 방어 예상. [기타] 매출 1,735억(+8%), OP 102억(-25%), OPM 5.9% 추정

다만, 2Q26 이란 전쟁 및 대전 공장 부품사 화재에 따른 국내 공장 가동률 예상되는 바, 계절적 성수기 효과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1Q26말부터 멕시코 공장 1.6T HEV 엔진 생산 시작되며 2Q26부터 멕시코 공장 가동률 회복 본격화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062	2,089	2,141	2,086	1.2	-0.2	2,163	2,029	-6.8	-2.7
영업이익	49	48	51	44	-9.0	-7.3	54	47	-16.9	5.9
순이익	96	7	41	39	-59.3	471.8	45	41	220.4	5.1

자료: 현대위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LG유플러스 (032640)

착실하게 이행 중인 밸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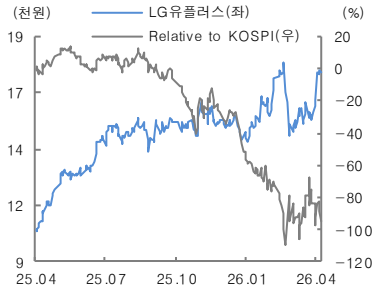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 유지
현재주가 (26.04.15)	17,380
	통신서비스업종

KOSPI	6091.39
시가총액	7,47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2,57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810원 / 10,77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0억원
외국인지분율	41.95%
주요주주	LG 외 3 인 38.26% 국민연금공단 7.3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6.3	14.0	14.6	61.4
상대수익률	4.7	-10.2	-31.2	-34.4



- 1Q26 매출 3.9조원(+5% yoy), OP 2.7천억원(+7% yoy)
- 총주주환원 25년 3.6천억원, 26E 3.8천억원. 26E 수익률 5.7% 전망
- 주주환원율 40~60% 목표, 26E 53%, ROE 8~10% 목표, 26E 7.7%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0,000원 유지

26E EPS 1,613원에 PER 13배 적용. 최근 5년 통신업(KT, LGU+ 기준) 평균 10배 대비 30% 할증 적용

1Q26 Preview: 무선 사업 호조, 비용도 안정적

매출 3.9조원(+5% yoy, 2% qoq), OP 2.7천억원(+7% yoy, +60% qoq) 전망

25년 OP 8.9천억원(+3% yoy). 명퇴비용 등 일회성 요인 제외시 약 1.1조원 수준
26E OP 1.16조원(+30% yoy)

무선서비스 매출 1.6조원(+2% yoy), 무선 ARPU(MNO) 36천원(+2% yoy) 전망
25년 이후 핸드셋 가입자 약 30만명 증가. 무선 매출 25년 +4.1%, 26E +1.7%
지난 5년간 경쟁사 보다 높은 성장. 연평균 LGU+ +3.1%, KT +2.8%, SKT -0.1%

인터넷 매출 3.2천억원(+7% yoy), IPTV 매출 3.3천억원(+1% yoy),
B2B 매출 5천억원(+10% yoy) 전망

DC 매출 25년 4.2천억원(+66% yoy), 26E 4.7천억원(+50% yoy)
21~25년 연평균 +13% 성장. 26~30년 연평균 +33% 성장 전망
평촌 센터의 매출 기여도 증가, DBO 사업 시작, 27년 파주 DC 준공

마케팅비 5.7천억원(+2% yoy), 매출 대비 20.0%로 5G 도입 이후 평균인 21.9% 대비 하회 예상. 감가비 5.8천억원(+3% yoy). 매출 대비 20%로 5G 도입 이후 평균인 19.7% 수준. 판매비는 안정적, 감가비는 23~24년 대비 부담 완화

착실하게 이행 중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주주환원 정책: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의 배당 및 0~20% 자사주
최소 배당은 DPS 650원. DPS 25 660원, 26E 680원, 27E 860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당

자사주 취득/소각 25년 800억원, 26E 900억원(+13% yoy) 전망
총주주환원 25년 3.6천억원. 26E 3.8천억원, 총주주환원 수익률 5.7% 전망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 주주환원율 목표는 40~60%, 중장기 ROE 목표는 8~10%
주주환원율 24년 59%, 25년 67%, 26E 53%, 27E 60%
ROE 25년 6%, 26E 7.7%, 27E 8.3%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748	3,848	3,927	3,926	4.7	2.0	3,861	4,003	4.1	2.0
영업이익	255	171	268	273	6.9	60.1	282	329	8.1	20.5
순이익	166	89	158	160	-3.3	80.1	177	203	-7.6	26.6

자료: LG유플러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